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종단협의회장상)

백의관음

현재명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오직 먹고 사는데 곤란하지 않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978년 가을, 급성기관지염이 걸리더니 그것이 나을만 하니 급성간염에 걸렸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우선 4주를 기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에 나는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자기치료를 하기로 하고 조카가 매일 집으로 와서 주사를 놓아 주었다. 그러면서 직장에도 갔다. 그러나 근무중에 굉장한 피로를 느껴서 틈만 나면 소파에 누워 있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동네인근 집에 기도를 가져다 주었다. 매일 2시간씩 3일간 아내와 함께 정성껏 기도를 하였다. 아주 간절

내려오다 밤목을 빼게 되었다. 아내는 천주교 개종 운운 해서 그런가라며 나를 나무랐다. 나는 가슴이 섬뜩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절뚝거리며 겨우 산을 내려왔다.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더욱 더 심신을 굳히겠다고 마음속으로 맺어놓고 다짐을 하였다.

그후 나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점상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니 여름에는 더위에 지치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거리질서 단속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당장 뽕족한 수가 없으니 하루 하루를 바쁘고 무의미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짜증은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막연하게나마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었다. 그 꿈의 정확한 실체는 없었다. 그저 현재와 같은 노점상의 상황에서 벗어나 좀 뜻뜻한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것이었다.

광소에 열심히 일하고 불특히 망해암에 가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를 한창 비상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런 노점상 생활을 한지 3년이 지났다. 그런데 그 기원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졌다. 내가 청와대에 근무하게 된 것이다. 시냇가로 조상의 묘를 잘 세아 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청와대에 슬기롭게 된

봉사에 대한 배려로 나는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그 감사패는 바로 부처님께 서 내려 주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여기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몇 년 후 웅만한 절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만등불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이 만등불사의 성취를 위하여 노심초사 전력투구하며 불사에 동참하였다. 그 결과 만개의 등불이 온 도량에 밝혀져 일대 장관을 이루며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만등불사를 마치고 나니 다른 어떤 행사도 치를 수 없다는 자신이 생겼다.

경기가 포천 급주산 종단에 금룡사가 있다. 그 금룡사에는 복을 향하여 우뚝 서 계신는 백의관세음보살님이 계신다. 백의는 법당과 관세음보살님께 전기 조명을 비추어 멀리서도 그 나무신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놓았다. 처음 그쪽 길을 밟아 가다가 밟고 그 웅장함에 놀랐는데 밤에 지나가다 흰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감동적이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그 모습에는 가슴 울림한 환희심을 느낄 것이다. 나는 그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 편이다. 그리고 그 웅장하고 자애로운 관세음보살님을 뵈올때는 운전중에 한 손을 가슴에 대고 예불을 한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박한 환희심으로 매어져 오곤 한다. 따라서 나는 그 앞길을 지나가기를 좋아한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러하다.

는 계기가 생겨 졸업후 조계종 포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뿐만 포교사이지 공무원인 관계로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포교활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 10월 5일 직장에 불교신행회가 창립되었다. '청와대불교신행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는데 이는 종교계나 언론계에 상당한 관심을 일으켰다. 나는 앞장서서 회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하면서 청와대불교신행회의 번창을 기원하였다. 1년 여가 지나면서 약간 그 활동이 저조하다가 1998년 9월 16일 '청와대불자회'로 명칭을 바꾸어 재 발돋움하는 계획을 가졌다. 이 때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총무간사로 임명되어 예전과 같이 청와회를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그러나 나 자신이 1999년 3월 명예퇴직함에 따라 더이상 청와회에 봉사할 수 없게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조계종 포교관에서는 포교사단을 결성하여 나는 경찰포교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나는 굳이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예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물론 궁극적으로야 깨달음을 이룩해야 하지만, 우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그 기쁨을 느끼며 수행을 하다가보면 종래에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그리고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처님의 기쁨을 크고 작게 여러번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관세음보살님은 더욱 더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간절히 염원하면 그 원을 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 지바로운 손길로 고난을 넘어가게 힘을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 나에게서는 내 나름대로의 포부와 원이 있다.

그 첫째는 타종교가 불교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일이다. 아니 불교가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는 일이다. 어쩌면 이 일은 나 혼자 힘으로는 영원히 불가능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다. 둘째는 각 종단이나 각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두루 쓰일 수 있는, 통일된 불경책을 편찬해 내고 싶다. 그리하여 그 한권만으로 어느 때, 어느 절에 가서라도 바로 불경이 사용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리고 생활여건이 허락될 때,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도량을 건립하여 수행정진하려 한다. 나는 이미 그 도량의 명칭도 지어놓고 있다. '화불정사(化佛精舍)'. 관음보살 42수주 진언에 화불수진언이 있는데 이는 나는 참마 부처님 곁에 있고자 하는 원이 담긴 진언이다. 바로 이 진언에서 따온 이름이다. 그리하여 수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면 병고와 인생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고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 그리고 법마다 기도하련다.

"관세음보살님 곁에라도 한번만 그 자리에서 모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노점상 하면서도 간절히 기도 힘찬 비상의 날을 고대하며... 3년만에 청와대서 일하게 됐다

히 다른 생각은 일체 끊고 병이 나이지기를 염원하였다. 기도중에는 피로한 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였다. 3일 기도를 마치고는 주사맞기를 중단했다. 병이 나을듯한 느낌이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사에게 솔직히 기도 얘기를 해주었더니 매우 놀라워 하면서 완쾌를 기뻐해 주었다.

친척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다. 몇 년 상담에 다니더니 나를 만나면 천주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곤 한다. 나도 천주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터였다. 어쨌거나 얼마후 나는 그 친척의 말 때문은 아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마음의 통이 끊겼다. 천주교로 종교를 바꾸어 볼까 하는. 그래서 아내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도 천주교로 개종하면 어떨까 했더니 아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니라는 뜻이 내뱉을 듯살해 버렸다. 나도 그냥 잊고 며칠 후 절에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계단을

것이였다. 나를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절에 다니며 기도하였더니 이런 날도 있구나 하는 감동을 누를 길이 없었다.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적시며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편이라고 하면서 더욱 더 깊은 불심의 세계로 들어갔다.

몇 년 후 의정부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한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동네의 끝이고 산이 시작되는데 그 곳에 절 '자운사'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자운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모든 일에 동참해 봉사하였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음력 정월 초하루,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에는 꼭 인양 광혜암에 먼저 새벽기도 다 나와서 동네의 절에 갔다. 몇 년 후 절이 중창불사를 하게 되었다. 아내는 중사기간 내내 절에 가서 스님들과 공사인부들의 공양 뒷바라지를 하였다. 나는 내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중창불사는 아무 생각이 없게 되었다. 준공법회 때 그 동안의

수년전 토요일 오후 친척과 함께 이동 방법으로 외식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후 돌아올 때는 캄캄한 밤이 되었다. 도중에 갑자기 아내가 토할 것 같다고 하였다. 급히 차를 세워 토하게 하였는데 입가심할 줄이 없었다. 칠월칠석은 밤에 멀리 등불 하나만 깜박이는데 어떻게 물을 구하나 걱정을 하는데 어찌하다 말을 보니 병이 하나 보였 다. 흑사나 해서 집어 보니 주경도 따지 않은 음로수병이었다. 그 음로수 덕분에 아내는 입가심을 하고 복통을 가라 앉힐 수가 있었다.

그 지점이 바로 금룡사 근처였다. 나는 속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같이 갔던 친척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편이라는 우리의 말에 기적같은 일이라며 충격을 해 주었다. 불교에 귀의한 후 나름대로 공부를 할려고 하였으나 생활여건이 공부에 심취 하기에 미흡했다. 그러던 중 인연이 닿아 조계사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



그림 · 이준석

소 년시절, 우리집에는 높이 약 40cm 가량의 하얀 도자기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 관세음보살상은 어머니가 모셔놓은 것이었다. 그의 에도 금색의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었으며, 뒤 벽면에는 관운장의 족자가 걸려 있었다. 즉 어머니는 당시에 관운장의 신명을 받은, 꽤 이름있는 무속인이었다. 이런 상황은 고교졸업 전까지 계속 되었고 나의 성격형성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은 시작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그 하얀 도자기의 관세음보살상이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 알 길이 없으나 가끔 장난한 미소를 머금은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그리워 해보곤 한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대체로 관음신앙을 주로 하는것 같다. 때문에 <천수경>

이 가장 많이 독송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보통 무슨 일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듯이 우리에게서 관음신앙이 체질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저런 연유로 나도 자연스럽게 관음신앙에 젖어들게 되었다. 1974년 음력 정월 초하루, 아내와 함께 새벽 3시에 절을 향해 집을 나섰다. 내 눈이 쌓여 있었다. 찾아가는 길은 초형이라 길도 잘 모르고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산 정상 가까이 있는 절을 향해 어릴적잡작으로 길을 잡았다. 신발에 새겨줄을 감고 눈덮인 산길을 미끄러지고 얼어지면서 겨우 당도하였다. 아내는 어려서부터 친정 어머니를 따라 절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절의 예절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초심자였으므로 아내를 따라 열심히 예불과 기도를 드렸다. 우리 부부는 처음 만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만났으므로 내 기도는


인터넷 마하몰

새 천년 새 희망

마하몰 불교상품으로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02)732-1522 (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최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보석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칙의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석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헬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대나무 숲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숲의 원력외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온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숲을 가까이 하길 추천한 것이 숲 염색천입니다. 숲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염색천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비른지계 건강방식 참선명상방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조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발명품. 이젠 바로게 허리띠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 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징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부박하고 자연적인 용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령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화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펄스펜 불펜 심이 LED펄스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트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가 격 : 25,000원
■1세트 : 10개입

불자 반야반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웁니다. 16개의 규격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 수행을 의미 합니다.

■규격도
정건(正堅), 정사유(正壽),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正正), 정정(正正), 정정(正正)
■실용대특력(十六大力)
지력(智力), 의력(毅力), 행력(行力), 참력(耐力), 강력(強力), 지력(持力), 화력(火力), 덕력(德力), 변력(變力), 색력(色力), 신력(神力), 자력(自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힘마력(降魔力)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 16개 규격 / 금 15mm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